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마음의 선장 진실로 믿는다면 無事

어려분과 더불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리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들 계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불이요,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자비를 알고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이 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헤아릴 수 없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뇌 하나가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놓고 볼 때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마음을 개선해서 참다운 진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정신계를 무시합니다. 자기 리더해나가는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몸뚱이 싸이 어떻게 푸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를 싸으로 비유하면 자기 불성의 주인공은 바로 뿌리인데, 요만한 이파리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다 뿌리에 달려있거늘 그렇게 자기를 리더해나가고,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작용케 해주는 그 근본 자기 보배를 무시하고, 자기 겉대기 자기만 자기라고 하니 이것이 진정코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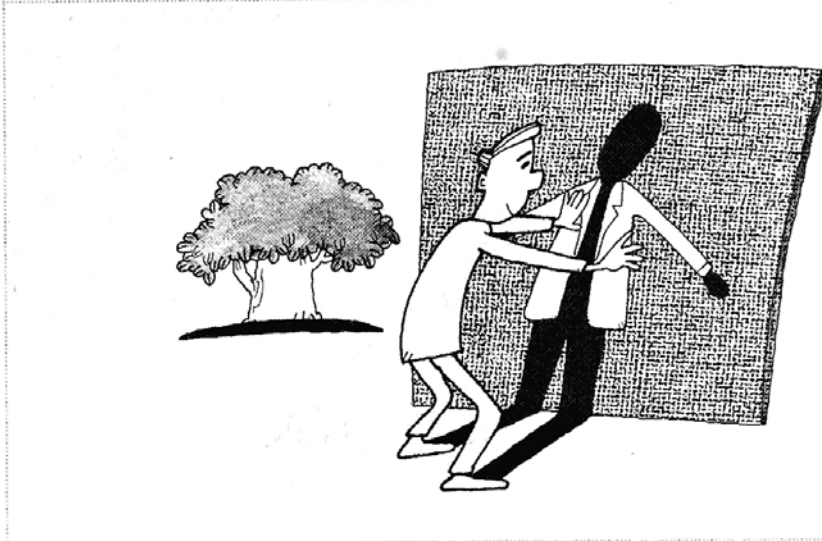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 이끌어주고 작용케 해주는 자기 근본 보배 뿌리 무시하니 사랑 · 도의 · 충성 나겠습니까

지금 시냇가로 말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거죠. 이 자동적인 컴퓨터는 정수밖에 있다고 봅니다. 이물해서 정수 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머리 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만 되는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지구가 버스 하나라면, 버스 하나에 함께 앉아서 네 걸상이나 네 걸상이나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제일 첫째 중요한 건데 한철 살다 갈 인생을 왜 그렇게들 네 것, 내 것 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철 사는 자체에 바로 자기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있고 미래의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 집니다. 정말 이견 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한식구가 들어있으면서, 온갖 생명들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싸우던 얘기죠. 싸움 뿐만 아니라 욕심, 관습, 착, 또는 인간의 도리가 고독한 탓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역경이 얼마나 많

니까, 실천이 나가겠습니까? 의리가 나가겠습니까. 도의가 나가겠습니까. 충성이 나가겠습니까. 효자가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겉대기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치면, 그 울파가 퍼져서 다시 오므라들면서 자기한테 다시 들리는 소리 말입니다. 공을 치면 자기한테 다시 튀어온다 이런 원리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걸음으로는 아무리 욕을 안하고 밖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벌써 그걸 알고 있던 말입니다. 이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마음내고 생각 하는 대로 상대도 알고 있다는 것! 상대의 소리도 속으로만 나오다가 나중에 터지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애들에게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합쳐져서 인생도 수레같이 굴러간다고 가르쳐줘서 귀를 띄게 해줘야 될텐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거 교육계에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싸움도 없어지고 부모에게 망나니짓 하는 것도 없어지고, 강도도 없어지고, 도둑도 없어지고, 사기도 없어질텐데 말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자기를 리더할 수 있

## 마음내고 생각하는 대로 상대도 알아 자기 리더하는 사람되면 겁날 게 없어

는 사람만 된다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근본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왔기 때문이죠. 처남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은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뼈 한 무더기를 놓고 절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절을 하시니 제자들이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여찌 그런 하찮은데다 절을 하십니까?' 하고 여쭙니 '아니나라.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으니까'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 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거치면서 진화되고 형성된 장본인이 지금 여기 모두 알아들 계십니다. 나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수억겁을 거치면서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왔겠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바로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

해서, 자기를 꺼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찢는단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미는 천년을 땅 속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픔을 찢고 나와서 얼마나 살다가 갑니까. 또 여인네들이 어련에 낳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조상이 자식한테 태어나기도 하고, 자식이 죽어서 또 부모한테 태어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겉대기를 찢고 나옵니다. 일거수 일투족 다, 어떠한 생명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 산길을 걷다 보니까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배들배들 하면서 땅에 뿌리를 못박고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서 뿌리를 땅에 던지 못하니?' 이렇게 그냥 심심하니까 말 답변을 하고서는 흙을 갖다 좀 이렇게 고여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달만에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가 아주 땅 속으로 콕 박혀있더라고요. 하물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물며 육수도 보세요. 그 해에 앞으로 태풍이 불고 아주 험난하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사방으로 뿌리를 퍼지게 해서 아주 깊이 잡습니다. 불을.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고통동물인데 부처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 안되겠습니까? 부처는 이미 돼있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죠. 본래 불성 즉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냥 여여하게 살게끔 돼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들고 내고 들고 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따라서 여여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그 수억겁 공안을 거치면서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런 아픔을 견뎌왔을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IMF 때문에 뭐가 어떻대요. 과거에

도 이런 경제 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만 그렇게 온 건 아니죠. 지난 역사를 본다면 나라를 뺏기고 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그냥 하다못해 뭐라도 목숨을 연명하려고 토마토 한 소쿠리도 안되는 거 가지고 가다가 들리면 그걸 발길로 차서 나뭇굴러지고 내던지고 그럴 때도 살았어요.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셨죠. 우리의 인생이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을 믿고 모든 것을 흔들지 말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은똥 찾고 아난법석을 하니가 배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뒤집히게 돼 있죠. 오직 자기의 마음이 선장을 진자로 믿는다면 그냥 하나로 믿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된다면 무사히 갈 수 있을텐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격이죠. 참혹하게 자기 정신계의 과거 자기를 믿고, 수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을 진자로 믿고, '너만이 이 모든 국난을 다 극복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또 가정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또 했으면 '감사해' 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빨리 극복이 되고 마음도 안정될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또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을 고생 안시키기 위해서 이물을 감추고 뒤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볼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다 내버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로만 치달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체가 자신에 자기는 믿지 않고 타의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 상대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너부터 알아라. 너가 바로 네 주체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도 떤데도 찾았어요. 그래서 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한마음으로 등돌려서 그저 삼배를 올린 것만으로도 그것이 삼백배도 되고 삼천배도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통증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200

## 내 집안 보물부터 찾아서 잘 간수하라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울쟁이가 개구리에게 흙 뱀새에 대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 마디의 말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울쟁이가 개구리 되어 물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 못한 것이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광대 무변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다.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보더라도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르면 보나마나이다. 자기 생활, 자기 몸, 자기 마음으로서 체험을 하찮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았다 할 것인가.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도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

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직접 먹어 보지 못하여 그 맛을 모른다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남의 목장에서 놀고 있는 짐승을 하루종일 새어 본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의 보물을 세고 있다 하여도 스스로는 한푼어치도 가질 수 없었다면 그 또한 무엇이겠는가. 팔만 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이론으로 가로 꿰고 세로 꿰는 해도, 멋진 비유와 걸구를 아무리 많이 기억한다 해도 가르침을 단 한번 실천한 사람만 못하다. 목이 마를 때 어떤 물이 몸에 좋고, 어떤 그릇으로 떠 먹어야 마시기 좋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의 구절들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얻어듣고 앵무새처럼 되뇌는 사람에게는 유향한 지식에



불과하다. 마음안으로부터 얻어야 비로소 말다운 말, 행다운 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언어들은 지식은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함께 떨어진다. 집을 짓는데 벽돌, 기둥, 대들보, 서까래 등 재료의 이름은 줄줄 외면서 막상 집을 지을 줄 모른다면 그 재료를 무슨 소용이 닿겠는가. 불법은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심에 진실로 감동했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해야 할 것이다. 역대 조사들이 초개같이 몸을 던져 공부하신 것이 숭고하다 하면 그분들이 하신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분만 좋고, 알음알이로만 참되고 아름다운 듯이 보이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은 진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다.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처님이 내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그분의 배부른 도리를 알 수 없다. 부처님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 내지 않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제 나무에서 열매 먹어야 맛을 알게 된다. 체험을 해보지 못하고 역대 조사나 선지식들의 말을 응용하여 '이러저러하더라'고 한다면 실사 말이 당당하다 해도 허공으로 떨어진 것이니 빈 맷돌질과 같다. 남의 집 보물을 탐내지 말고 내 집안 보물부터 찾아 간수하고 닭고 빛 내라. 협찬: 주인공